

‘한·일’의 과거를 읽고 미래를 본다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국과 일본》

함동주

이화여대 교수·사학

한국 사회가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중에 중요한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정치·경제·문화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양국간의 표면적인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상호 불신감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자리잡고 있다. 1945년 이후 양국관계를 사실상 규정해 왔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현재 한일 양국은 새로운 동북아의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있다. 그 때문인지, 양국간에 내재하는 갈등이 표면화되는 빈도가 최근들어 찾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이 엮은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와 하영선 교수가 엮은 《한국과 일본-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은 기존의 일본관계서들에 결여되었던 양국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과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의 역사인식 재검토

먼저,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는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공업화론’ 및 식민지시대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민지공업화론’은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 식민지시대 한국의 공업화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일면 실증적 경제사를 지향하고 있는 이 이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나아가 해방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즉, 식민지 기간 동안의 한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중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비록 학문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 즉 식민지 지배 미화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일본사회의 과거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다 실증적인 경제사적 접근(식민지 공업화와 한국의 경제발전), <식민지 재정기구를

두 책 모두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양국의 최대 걸림돌인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통한 세출의 용도와 성격), <식민지 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의 유출입과 성격>과 냉철한 사실분석을 통한 문제접근(1900년대초 일본과 맺은 조약들은 유효한가), <한일조약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망언>을 피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일본관계 서적들이 지닌 감정적 반일주의적 태도를 지향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피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작업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 맹목적인 일본비판의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보다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한일관계는 무엇이 문제인가》)에 기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은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과거의 청산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를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전자가 식민지 시대를 직접 대상으로 한데 비해, 해방 이후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식민지 시대가 어떻게 투영되었고 이해되었는가를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실상에 접근하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책은 다가오는 21세기 있어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재정립 필요성(《탈근대 지구질서와 한일관계의 미래》)을 전제로, 오늘날 한일 양국의 관계가 지닌 문제들이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 속에서 왜곡 혹은 방치되어 온 데에 있다는 입장(《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비교), <한일 경제관계>을 취한다. 과거청산이아말로 올바른 양국관계 정립을 위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일 시민사회의 관계구축을 위한 조건》)하고 있다.

발전적 미래 위한 문제의식 공유

이상과 같이, 위의 두 책은 각각 상이한 목적과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책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었고, 필진이나 분석대상이 유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책 모두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한 진단을 보자. 지지하다시피, 근대기에 있어 한일 양국은 때로는 경쟁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긴밀성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면에서 양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의 모두에서 박영재 교수는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에서 “지금의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은 한걸음 나아가 머리말에서 “한·일간의 근대적 만남은 비극의 역사였

다”고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 이 두 책은 기존의 한일관계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두 책 모두 과거·현재·미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한일 양국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20세기 전반기 50년간의 역사가 현재까지 양국간에 쟁점과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역사상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 특히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대의 한일관계, 나아가 현재의 한일관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같이 두 책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최대 걸림돌인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일본의 정부관료나 우익세력의 발언에 대해 감정적이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대응에 머물러온 우리 정부나 언론, 나아가 일반 대중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합리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

·《일본의 본질을 묻는다》
한길사/A5신/318면/12,000원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A5신/264면/10,000원